

한국인의 백의풍속(白衣風俗)에 내재된 미의식

김 은 경* · 김 영 인**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전공 교수**

The Aesthetic Consciousness Latent in the Korean People's White Clothes Customs

Eun-Kyoung Kim* · Young-In Kim**

Researcher, The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of Yonsei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2006. 1. 17 투고)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Korean people's white clothes custom historically and to explai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latent in the custom.

Korean people preferred white clothes, even up to foreigners called them White-clad folk. Not only as in old historical literatures, but also in Soo-suh, Shin-Dang-suh including Sam-Kuk-Ji in China, white clothes were a real symbol to Korean people, ranging chronically far back to the age of ancient tribal countries, Sam-Kuk Period through Koryo Dynasty and even to modern age near the end of Chosun Dynasty, wearing with pleasure regardless of age, sex or social position. Even King himself in Koryo Dynasty is said to have worn white clothes when he was out of official hours. During the Koryo and Chosun Dynasty, white clothes were sometimes prohibited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conflicts with the theories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but such regulations were not effective. To Korean people, white clothes were ordinary people's everyday dress as well as noble people's plain suits, saints' uniforms with religious meanings, ceremonial costumes, funeral garments, etc. The various uses show that white clothes have been worn by many people. The unique custom that a people have worn white clothes consistently for such a long time may contain very deep symbolic meanings representing the people's sentiments and spirits. The present study understood that the meanings come from religious sacredness, magical wish for brightness, the pursuit of purity originating from the people's national traits, assimilation with nature and the will to attain whole ascetic personality. Aesthetic attitudes based on aesthetic values summed up as sacredness, brightness, purity, assimilation with nature, asceticism, etc. are the aesthetic consciousness pursued by Koreans through their white clothes.

For Koreans, white color is the origin of their color sense coming from primitive religions such as worshipping the sun and the heaven. In this way, Korean people's preference for white clothes began with primitive religions, was mixed with various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influences and finally was settled as their durable spirit, symbol and beauty.

Key words: white color(흰색), korean white costume(한국의 백의), aesthetic consciousness of color(색채 미의식)

I. 서론

한국인은 예로부터 백색을 선호하고 백색 옷을 즐겨 입어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 하였다. 백색은 한국인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나 만주 시베리아에서 살았던 유목 민족들이 신성하게 여기고 좋아한 색이다.

태양을 숭배한 고대사회에서 백색은 태양과 태양 빛을 의미하는 신의 색으로 숭배되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백색에는 하늘과 천국의 색, 깨끗하고 맑은 색, 정신적 영역의 색, 순박한 자연의 색 등 다양한 상징 의미가 부여되어왔다.

한국인의 백색에 내재된 태양숭배사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음식풍속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인은 아기가 태어난 지 백일이 되면 하얀색 백설기를, 생일날에는 흰쌀밥을, 결혼식 날에는 흰 국수를 나눠먹으며 태양 빛처럼 막힘이 없는 밝은 앞날을 기원해왔다.

한국인의 백색 선호는 무엇보다도 의생활을 통해 표현되어왔다. 한국인은 아기가 태어나면 흰옷을 입히고 평생 흰옷을 입어 백의민족이라 하였다. 한국인의 흰옷에 대한 승상은 중국의 고서인 삼국지위지동이전(三國志魏志東夷傳)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수많은 백의금령(白衣禁令)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어왔다.

한국인의 백의풍속에 대해서는 선학자들 간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어왔다. 최남선은 여러 학자들이 한국인의 백의풍속에 대해 기자가 동래(東來)하여 온 나라 풍습이 전해진 것이라거나, 혹은 염료가 부족하여 원색을 습용한 까닭, 또는 이조 명종 이후의 국상 때문이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으며, 전민족이 시처(施處)를 초월하여 백의호상(白衣好尚)이라는 특속(特俗)을 이어온 것에는 심원한 근거와 중요한 전통이 있다고 하였다.¹⁾

그러므로 한국인에게 백의는 한국 고유의 미적 감각의 표상이며 오랜 역사를 지니고 한국 문화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린 한민족(韓民族)의 감정, 정신적인 상징으로서 충분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인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흰색 복식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고, 그 안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흰색 복식과 관련된 기록을 정리 분석하여 역사적 고찰, 백의금령, 착용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종합하여 그 안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추출하였다. 또한, 미적 가치는 이상적인 이념이 된 예의범절, 풍습, 종교 등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형성되고 출현되므로, 이를 형성시킨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도 고찰을 병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로 하였다.

이 연구는 첫째, 복식의 형식과 내면에 응집되어 있는 미의식을 추적함으로써 정신사가 포함된 한국 복식 미학사 정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둘째, 과거 복식에 내재된 색채관을 탐색함으로써 보다 참신한 전통 문화의 현대화 및 미래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II. 백의의 문헌고찰

한국인은 백색을 말할 때에 아주 희다는 뜻에서 순백(純白) 또는 수백(粹白), 백정(白精), 정백(精白) 그리고 때로는 선명하게 희다고 해서 선백(鮮白)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들은 흔색이 전혀 없는 상태의 흰색을 뜻하며 흰색에 가깝지만 미묘한 흔색이 있는 색들은 젖빛 같은 유백(乳白), 달걀 빛 같은 난백(卵白), 잿빛을 겹친 회백(灰白), 누르스름한 황백(黃白), 푸르스름한 청백(青白) 등으로 구분해서 불렀다. 실이나 옷감의 표백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백색을 소색(素色)이라고도 했다. 소(素)자는 흰 소(白也) 또는 순백(純白) 소(無色)라 하여 빛깔이 흰옷을 ‘소의(素衣)’라 했으며 겨울의 흰 눈을 ‘소설(素雪)’, 흰 얼굴을 ‘소안(素顏)’, 가을은 음양오행의 백색이므로 ‘소추(素秋)’라 했다.²⁾ 이와 같이 한국인에게 ‘백색’이라는 말은 단순히 ‘흰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순백과 유백, 난백, 회백 등의 모든 백색 계열의 색을 아우르는 말이다. 또한 여기에는 인공적으로 색을 조작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색이라는 의미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순백으로부터 소색에 이르기까지

백의에 대해 언급된 문헌을 고찰하여 분석 정리하였으며 역사적 고찰과 백의금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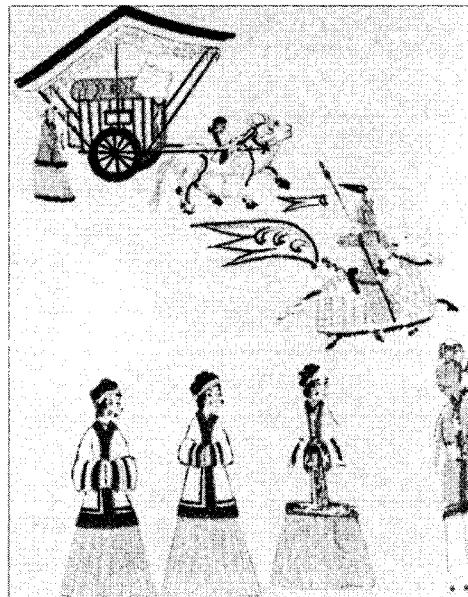
1. 역사적 고찰

한국인이 흰옷을 좋아하고 숭상했다는 기록은 부족국가시대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삼국지위지동이전에는 부여인들은 흰색 옷을 숭상하여 흰색 옷에 소매가 넓은 포와 바지를 입는다(夫餘 在國衣尙白 白布大袂袍袴)는 기록이 있다.³⁾ 수서(隋書)에는 신라의 의복은 대략 고구려 백제와 같으며, 의복의 색은 흰색을 숭상한다(衣服略高句麗百濟同 服色尙素)는 기록이 있으며,⁴⁾ 구당서(舊唐書)에는 신라의 풍속, 형법, 의복이 대략 고구려, 백제와 같고 의복은 흰색을 숭상한다(新羅基風俗刑法衣服 與高麗百濟略同而朝服尙白. 新羅 与高句麗百濟略同而朝服尙白)는 기록이 있다.⁵⁾ 같은 책(舊唐書) '고구려조'에는 의상과 복식에서 왕만이 오채(五彩)로 된 옷을 입을 수 있으며, 흰 비단으로 만든 관(冠)과 흰 가죽으로 만든 소대(帶)를 쓴다(衣裳服飾 唯王五彩 以白羅爲冠 白皮小帶 其冠皮帶 咸以金飾)고 하였다. 한편, 북사(北史)의 '열전 고구려조'에는 주몽이 도망치다가 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한 사람은 삼베옷을, 한 사람은 무명옷을,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부들로 짠 옷을 입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이 입었던 옷들은 모두 흰색에 가까운 소색(素色)이다.⁶⁾

이상의 내용을 통해 한민족은 부여시대로부터 흰 옷을 착용해왔으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도 백의풍속이 계속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특히, 고구려 기록에는 왕의 백색 나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고구려의 나관(羅冠)은 책(幘)처럼 생긴 내관과 얇은 비단인 라(羅)로 만든 외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왕을 비롯한 높은 신분을 가진 귀인들만이 썼다. 색으로써 왕과 대신을 구별하여 신분의 차이를 표시하였는데 대체로 왕은 백색, 대신은 청색, 붉은 색으로 만들었다.⁷⁾ 고구려시대에는 백색이 붉은 색, 청색보다도 더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색임을 알 수 있다.

고대 사회의 백의풍속은 고려시대에도 계속되었다. 고려시대 복식은 통일신라의 복식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기본 포제는 백저포(白綺袍)를 착용했다. 여인들의 복식은 민서(民庶) 여인들과 귀부복(貴婦服) 구별 없이 유·상·고를 입고 그 위에 남자들의 포와 비슷한 백저포를 입었으며, 특건(勒巾)에 수식으로 신분을 구별하였다.



〈그림 1〉 고구려 부인의 저고리와 군, 쌍영총

송대(宋代)에 서궁(徐兢)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을 통해 고려시대 복식을 살펴볼 수 있다. 고려도경 권20 부인편에는 여자의 의복은 흰색 저고리에 노란 치마로서(白綺黃裳) 왕족이나 귀족(公族貴家)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 처첩(妻妾)에 이르기까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한결같다(舊俗 女子之服 白綺黃裳 上自公族貴家 下及民庶妻妾 一槩無辨)고 기록되어 있다.⁸⁾ 권19 백성(民庶)편에서, 장인(工技)은 항상 흰 도포에 검은 두건을 쓴다(常服 白綺袍阜)고 기록하고 있으며,⁹⁾ 농민과 상인은 모두 백저(白綺)로 된 걸옷(袍)에 네 가닥 띠가 있는 검은 두건(阜巾)을 쓰는데, 베의 곱고 거친 것으로만 구별한다. 국관(國官)이나 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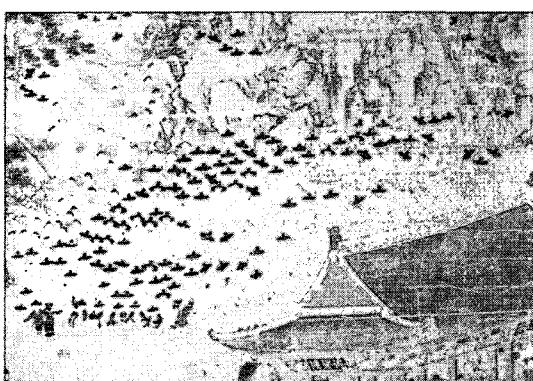
도 빠근하여(退) 사가(私家)에서 생활할 때면 역시 이를 입는다(基服 皆以白紵爲袍 阜巾四帶 唯以布之精粗爲別 國官貴人 退食私家 則亦服之)고 기록하고 있다.¹⁰⁾ 권7 왕의 복식(王服)에서는 평상시 철 때 겸은 두건에 백저포를 입고 있어 일반 백성과 다를 게 없다(平居燕息之時 則皂巾白紵袍 與民庶無別也)고 기록하고 있다.¹¹⁾

이외에도 송사(宋史)에는 고려 사신 관원이 “본국의 사녀(士女)는 흰옷을 승상한다”고 말한 기록이 있으며,¹²⁾ 조선 초 서거정이 쓴 필원잡기(筆苑雜記)에는 「고려 사람은 흰옷을 좋아한다(高麗人好白衣)」는 기록이 있다.¹³⁾

이상의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에는 일반 백성들과 여인들은 상하구별 없이 흰색 옷을 입었으며, 왕과 귀인들도 평거(平居)시에는 흰색 옷을 입어 백의풍속이 계속된 것을 알 수 있다.

백의풍속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었다.¹⁴⁾ 중국 명(明)나라의 사신 동월(董越)이 조선 풍토(風土)를 부(賦)로 옮은 내용을 엮은 책 조선부(朝鮮賦)에는 “의복이 깨끗하고 희며 대부분이 흰색 옷을 입었다(衣皆素白而布縷多食則離披而積亦)”는 기록이 있다.¹⁵⁾

조선시대에는 일반백성은 물론 당시 지배계층인 양반 사대부들도 백의를 매우 선호하여 일상복으로 백의를 착용하였다(그림 2).¹⁶⁾ 이는 당시의 사대부들이 유교의 성리학을 추구하여 검소를 생활의 미덕으로 여기고 문인취향의 취미를 발달시켜 학처럼



〈그림 2〉 평안감사 환영도(부분도), 19세기.

고고한 백색의 세계를 즐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대부를 대상으로 빈번히 백의금령이 내려졌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백의금령을 통해 역으로 당시 백의가 얼마나 생활화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2. 백의금령

백의금령이 문헌에 처음 보인 것은 고려 충렬왕 원년(1275)이다. 고려 충렬왕 원년에 태사국(太史局)에서 임금님께 아뢰기를 “동방은 오행 중 목(木)의 위치이오니 푸른 색깔을 승상하여야 하며, 흰 것은 오행 중 금(金)의 색깔인데 지금 나라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흰 모시옷으로 옷을 많이 입으니, 이것은 목이 금에 제어되는 현상입니다. 백색의복을 금하기를 청하나이다”하니 그 말을 좋았다(高麗忠烈王元年 大司局言 東方本位 色當尙青 而白者金之色也 國人自着我服 多袍以白紵衣 木制於之象也 請禁白色服 從之)는 기록이 있다.¹⁷⁾ 즉, 백의(白紵衣)는 백색을 상징하는 복제로 음양오행에 부합되지 않으니 이를 금해 달라고 하여 왕은 백의금령을 내렸다.

충렬왕 29년 9월에 다시 백의립(白衣笠)을 금하였으며, 이어 공민왕 6년(1357) 9월, 우왕 8년(1382)에도 동일한 이유로 백의금지령이 내려졌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더 많은 백의금령이 내려졌다. 태조 7년(1398) 6월(凡男女黃色灰色縞素之衣 一皆禁繼)과 태종 원년(1400) 5월(禁白色衣服)에 흰색 옷에 대한 금지령이 내려졌으며, 세종 7년(1424) 10월과 동왕 11년(1428) 2월에는 사대부를 대상으로 백의금령이 내려졌다(有職事人員白色衣禁止 世宗實錄 卷三十二). 연산군 11년(1504)에는 도성 여자들이 흰색치마를 입는 것을 금했고, 숙종 2년(1675)과 17년(1692) 현종, 영조, 정조 때에도 흰색 옷을 입는 것을 금했다.¹⁸⁾

이외에도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백의금령이 내려졌는데, 이명희(1974)는 그 이유를 첫째,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음양오행설에 부합되지 않으며, 둘째, 상복의 색으로 공복에는 적합하지 않고, 셋째,

계급적 질서를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대외적 면목을 세우기 위하여 사관(士官)들의 백의착용을 금했다고 하였다.¹⁹⁾

빈번한 백의금령은 왕실과 귀족, 사대부 사이에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전국적 또는 전면적인 개혁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일반 민중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III. 백의 착용의 예

한국인은 성인복(聖人服), 종교복, 제례복(祭禮服), 상복(喪服), 학자복, 양반들의 평거복, 평민복으로 백의를 착용하여 그 용도가 다양한 만큼 많은 사람이 널리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1. 성인복

한국의 불교, 민속신앙인 무속, 옛 설화 등을 살펴보면 백의를 입은 성인(聖人)을 발견할 수 있다.

불교의 백의관음(白衣觀音)과 지장보살(地藏菩薩)은 백의를 입고 있다. 백의관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흰옷을 걸치고 순조로운 출산과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살펴준다.²⁰⁾

불교에서 백색은 지혜를 표상하며 지순무잡(至純無雜)의 형용, 즉 청정(淸淨)을 의미한다. 수행하는 순결한 마음을 백심(白心)이라 하며 백심 가진 이의 가는 길을 백도(白道)라 한다.²¹⁾ 이 백심이 구체화된 관음상이 백의관음이다. 한국의 백의관음은 인도에서 탄생한 백의관음에 중국풍의 수월관음이 융합되어 전해진다고 한다(그림 3).²²⁾

지장보살도 하얀색 백의를 입고 있다. 지장보살은 사후의 세계를 담당한다. 죽은 사람의 죄를 구제해주고 지옥에 떨어져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인도하여 안락한 정토나 해탈의 길로 이끌어 주는 보살이다. 최남선(1948)은 지장보살의 백의에 대해, 대비대수고(大悲代受苦)의 심증한 서원(誓願)을 세우고 지옥도(地獄道)의 화도(化道)를 당책하였으며, 미륵(彌勒) 출세와 중생 교화를 맡은 보살인 만큼 그의 형상에는 희망의 표호(票號)가 필요할 것이며,

백의는 영원한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을 시현(示現)한 것이라고 하였다.²³⁾



〈그림 3〉 백의 수월관음도
고려1310. 일본경신사.



〈그림 4〉 삼불제석도
경희대 중앙박물관 소장

한국의 민속신앙인 무속의 무조(巫祖) 성모천왕(聖母天王)과 수호신인 삼불제석(三佛齊釋)도 백의를 입고 있다(그림 4).²⁴⁾ 이능화는 ‘조선무속고’에서, “세상에 전하기를 지리산 고엄천사(古嚴川寺)에 법우화상이 있었는데, 매우 도행이 높았다. 어느 날 산골짜기를 바라보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물이 불어 있었다. 그 흘러온 물줄기를 찾아 천왕봉(天王峰)에 이르니, 기골이 장대한 백의여인(白衣女人)이 보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성모천왕이라 하고…중략…큰 방울과 울긋불긋한 부채로 춤을 추고, 아미타불과 법우화상을 부르면서 방방곡곡에 무업(無業)을 행하였다. 이 때문에 큰무당은 반드시 지리산에 가 성모천왕에게 기도해 접신(接神)한다”고 했다.²⁵⁾ 무속에 많이 등장하는 삼불제석(三佛齊釋)도 아기를 점지해주고 병으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그림 4〉에서와 같이 백의를 입고 있다.²⁶⁾ 무속에서 백의는 인위적인 가공을 하지 않은 옷으로 결백과 순수를 상징했다.²⁷⁾

한국의 옛 설화인 ‘나무꾼과 선녀’에도 백색으로 된 선녀의 날개옷이 등장한다. 최래옥은 설화에 등

장하는 백의에 대해 하늘나라 사람임을 표상하는 성스러운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²⁸⁾

2. 종교복

한국의 종교복식에서도 백의를 발견할 수 있다.

호남지방과 동해안의 무당들은 흰 종이 고깔과 흰옷으로 이루어진 무복(巫服)을 입었다. 무당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영매자로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축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무당들이 입는 무복은 굿의 내용에 따라 총이나 굿판의 분위기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엄숙하고 주술성이 강한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굿에 사용되는 순백색의 무복은 일상적인 의복의 기능을 초월하여 무조신인 지리산 성모천왕을 대신하는 신의 옷이라는 상징성을 가졌다(그림 5).²⁹⁾ 그래서 무당이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신이 빨리 내린다든가, 굿에 참석한 일 반대중도 이 옷을 입고 총을 추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으며, 망자의 극락천도를 빌 때에도 흰옷을 입는 등, 무속에서 백의는 종교적 신앙심을 표현했다.³⁰⁾

정중동의 미가 극치를 이루는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동작으로 구성된 살풀이춤도 남도 무무(巫舞)의 계통이다. 살풀이란 살(액)을 푼다, 없앤다는 뜻으로 살풀이굿에서처럼 삼엄한 귀기가 도는 춤이다. 부드럽고 가벼운 흰 수건을 들고 독특한 살풀이 장단에 맞추어 수건을 휘날리며 총을 추는 살풀이춤

도 흰 치마 저고리의 백의를 입는다.³¹⁾

민속 무용의 정수인 승무의 복장도 일반적으로 흰 장삼에 고깔을 쓴다. 승무의 유래는 세존께서 「법화경」을 설할 때 천사색(天四色)의 채화(綵華)를 내린 것을 가십이 알아차리고 춤을 추었다고 하여 후세 승려들이 이를 모방하였다는 설에서 시작하여 상좌중이 스승의 기거 범절과 독경 설법의 모습을 흉내내는 동작이라는 설 등 다양하며 현재의 승무는 불교 의식무인 법고춤에서 유래하였다고 보는 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³²⁾ 이와 같이 승무, 살풀이 총을 추는 무희(舞姬)의 순백색 무복(舞服)에는 행위자들의 예술적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하려는 예술의지와 함께 심오한 신앙심이 내재되어 있다(그림 6).³³⁾

한국의 도교에 대한 기록에서도 백의를 찾을 수 있다. 고려도경에는 도교(道教)의 도사(道士)는 우의(羽衣)를 입지 않고 백포(白布)를 갖옷(裘) 삼아 입으며, 네 가닥 띠가 달린 겹은 두건(阜巾四帶)을 쓴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³⁴⁾

조선시대 종교지도자들의 복식에서도 백의를 발견할 수 있다. 조선시대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는 <그림 7>과 같이 흰색 도포 위에 성직자의 직책과 의무, 성덕(聖德)을 상징하는 영대를 두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천주교의 사제들은 성찬 예식과 설교를 할 때 장백의(長白衣) 위에다 영대를 둘렀으나, 조선시대의 사제는 제의(祭衣) 대신 흰색의 도



〈그림 5〉 진도 씻김굿



〈그림 6〉 승무



〈그림 7〉 천주교 복식



〈그림 8〉 천도교 복식

포 위에 영대를 두르고 갓을 썼다.

천도교의 교주 최제우도 <그림 8>과 같이 흰색도포에 천도교를 상징하는 정자관을 쓰고 있다.³⁵⁾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백색 옷을 많이 입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입는 백의는 고결, 결백, 순수, 성결(聖潔)을 상징한다. 더러움을 타기 쉬운 흰옷은 그만큼 악으로부터 먼 거리를 지킨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순수성을 상징한다.³⁶⁾

3. 제례복

부여인들은 은정월(殷正月)이 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의복은 백의를 승상하는 뜻으로 보이는 흰 베로 만든 소매가 큰 포와 바지를 입으며 신은 가죽신을 신는다는 기록이 있다.³⁷⁾

고려사에는 충숙왕 7년(1320) 정월에 원에서 일식하리라고 알려오자 하정례(賀正禮)를 정지하고 백관(百官)이 소복으로 기다렸으나 일식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인종 원년(1123) 12월에는 달이 개기식(皆既食) 하므로 왕이 소복으로 전정(殿庭)에 나와 월식을 그치게 하였다(十二月戊午 月食既 王素服 殿出庭 救食)는 기록도 남아 있다.³⁸⁾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부정한 일을 멀리하고 심신을 깨끗이 하는 일인 재계(齋戒)에 백색을 사용하였다. 이는 백색이 엄숙과 순일(純一)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논어(論語)에는 「齋必有明衣布」라 하고 중庸(中庸)에는 「齋明盛服」이라 함도 다 의복부터 희어야 정명(精明)과 전일(專一)의 정성을 이룬다

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³⁹⁾

한편, 백색을 기피한 궁중에서도 유독 백일된 왕자 아기에게는 흰 바지를 입혔다. 이는 민속에 보이는 배냇 저고리의 유습(遺習)으로 보인다.⁴⁰⁾ 한국인은 태어나자마자 흰옷에 몸을 끌이며 아이의 장수를 기원하는 옷을 입힌다. 이것은 수명장수의 뜻으로 갓을 달지 않고 실대를 달았다(<그림 10>). 유아시절에도 흰옷을 주로 입고 자라며 백색의 옷이 가장 많았다(<그림 11>). 아동의 백색 옷은 액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주술적인 의지가 담겨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제복과 예복에 사용된 백의는 무속의 주술적인 성격과 함께 신성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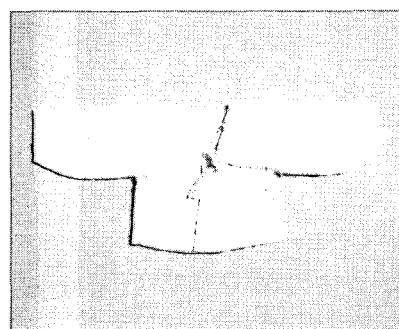
4. 상복

한국인은 예로부터 상복으로 흰색 소복(素服)을 입었다. 삼국지위지동이전에는 부여인은 거상중(居喪中)에 백의를 착용하였다(居喪中 男女皆純白)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유사(三國遺事) 백제본기(百濟本紀) 무왕조(武王條)에는 백제왕이 사망했을 때 이를 알리려 간 사신이 소복차림이었다는 기록이 있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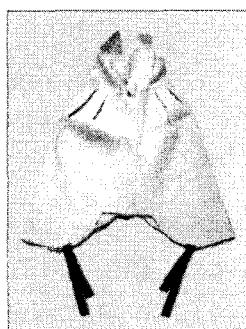
고려사에는 문종 31년(1077) 오월 갑술에 왕이 현고(顯考)의 기(忌)로 소란(小欄)을 입고 정전(正殿)을 피(避)하였으며 중외(中外)로 하여금 종월(終月) 토록 음악을 끊고 사냥을 금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 중종때 왕명에 따라 보고한 전례(前例) 성종비(成宗妃) 한씨상례(韓氏喪禮)에는 왕비가



<그림 9> 제사지내는 모습.



<그림 10> 배내옷,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11> 풍차바지

죽었을 때 왕의 상복은 백목면(白木綿) 단령(團領), 생마피(生麻皮) 띠, 흰 신을 30일간 착용하고 백관들도 흰 상복을 입는다는 기록이 있다. 이외에도, 이명희(1974),⁴²⁾ 전완길(1983),⁴³⁾ 이명희(1989)⁴⁴⁾ 등에 의하면, 고려사와 조선실록에는 제왕상시(諸王喪時) 백관(百官)과 사서(士庶)가 현관소복(玄冠素服) 또는 백모소복(白帽素服)을 하였다는 기록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상복도 흰색의 소복차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은 국상(國喪)은 물론 부모가 사망했을 때에도 흰 상복을 입었다. '부모가 돌아가면 가족들은 3년간 상복을 입어야 하며 이 기간에 아들은 배두루마기를 입고 허리띠는 새끼로 하고 그들의 집 가까이에 세운 초가(草家)에 기거해야 하며 술과 노래와 사치를 금(禁)하고 조식(組食)을 해야하며 특히 악기를 수반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상주가 외출해야 할 때는 우산만큼 크고 치밀하게 짠 갓을 쓰고 나가야 하며, 자신의 얼굴을 숨기기 위해서 삼베로 만든 피선(皮扇)으로 얼굴을 가린다<그림 12>.⁴⁵⁾

한국인의 상복이 백색인 것에 대해 김근태는 제천의식에서 유래한다고 하였으며,⁴⁶⁾ 구미래(1992)는 상중에는 채색된 옷을 입지 않는다는 예의로서의 의미와 저승길을 밝혀 좋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기원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였다.⁴⁷⁾



<그림 12> 상복

5. 학자복

한국의 학자들은 백색의 학창의(鶴氅衣)와 심의(深衣)를 입었다.

학창의는 예부터 신선이 입는 옷이라고 하여 덕망 높은 학자나 도사가 입었다. 중국의 진나라 및

남조시대로부터 내려온 옷으로 원래 학의 깃털이나 새의 깃털을 짜 만든 구의(갓옷)였다. 중국의 도교에서는 우의(羽衣)라 불렸으며,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 학창의라 불렸다. 넓은 소매에 무가 있고 옆선과 뒷솔기가 트여 대창의와 유사하나 흰색이며 옷깃, 수구, 옷단 등 트인 부분에 검은 선을 들렀다. 머리에는 방건, 복건 등을 써서 심의와도 비슷해 보이지만 세조대를 떠는 점이 다르다<그림 13>.⁴⁸⁾

심의는 유학자의 법복이다. 고려시대 주자학과 함께 송에서 들어왔으며,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이를 법복, 관례복, 수의, 제복 등으로 입었다. 깃의 모양은 마주 닿는 깃인 대금(對襟), 네모난 깃인 방령(方領), 곧은 깃 등 다양하며, 소매는 넓고 등글다. 옷깃, 쇠선, 수구, 치마의 단에 검정 선을 두르고, 허리에는 대대를 끼고 대의 앞에는 다섯 가지 빛깔의끈을 묶어 늘어뜨린다. 머리에는 주로 홀겹의 혹사로 만든 복건을 썼다<그림 14>.⁴⁹⁾



<그림 13> 학창의



<그림 14> 심의

한국인은 청렴결백(淸廉潔白)한 선비상을 이상적으로 여기고 흔히 선비를 학에 비유해 백색으로 표현하였다. 백색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색이 아니라 이상적이고 의미지향적인 성격을 내포하였다. 인간의 감각과 감정을 멀리하고 높은 인격에 이르려는 한국인 특유의 인생관을 백색으로 표현해왔다.

6. 평거복

백의는 양반들의 평거복이었다. 한국의 국가관리, 귀인, 심지어 왕까지도 사가(私家)에서 생활할 때는 백의를 착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그림 15).

고려도경에는 국관(國官)이나 귀인이 퇴근하여(退) 사가(私家)에서 생활할 때면 백저포를 입는다(基服 皆以白紵爲袍 阜巾四帶 唯以布之精粗爲別 國官貴人 退食私家 則亦服之)는 기록이 있으며,⁵⁰⁾ 같은 책 왕의 복식(王服)에는 평상시 쉴 때 겸은 두건에 백저포를 입고 있어 일반 백성과 다를 게 없다(平居燕息之時 則皂巾白紵袍 與民庶無別也)는 기록이 남아있다.⁵¹⁾

유교사상에 의해 사회의 신분제도를 엄격히 구분 하던 조선시대에도 왕의 평상복은 서민과 같았으며, 옷감, 소매넓이, 장신구 등이 달랐다.⁵²⁾

한국의 백색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색이었으며, 깊이 있는 백색의 색채감정에는 순수한 것, 본연의 것, 비장식적인 것에의 귀의를 뜻하는 겸허한 마음이 함축되어있었다. 옛 기록을 살펴보면 선비들이 착용해 온 백의는 겸소한 복식으로 높이 평가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김응렴은 아들이 없는 현안왕의 사위가



〈그림 15〉 독서여가(讀書餘暇),
간송미술관

되어 후에 경문왕으로 즉위(即位)하는데, 그가 사위로 발탁된 사연은 백의의 혼인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안왕이 임해전(臨海殿)에서 잔치 할 때 15세의 소년인 김응렴에게 「네가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동안 어진 이를 발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응렴은 세 사람의 어진 이를 보았다면서 「하나는 고귀한 집 자제로 남과 사귐에 있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의 아래에 친하려 들며, 하나는 부자여서 의복이 사치할 수 있음에도 늘 모시옷이나 베옷으로 만족하게 여기며(家富於財 可以侈衣服而常以紵自喜) 하나는 권세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권세를 빙자하여 남을 억압하려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고 대답하였다니 그가 사람을 가릴 줄 안다하여 사위로 내정했던 것이다.⁵³⁾ 여기서 모시옷과 베옷은 염색을 하지 않은 소색으로 백색을 의미한다. 염색을 하지 않은 백의는 당시에도 겸소한 의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시대에 문극겸은 수놓지 않은 비단을 입음으로써 겸소가 돋보여 칭송을 모았다. 문극겸은 성품이 효우자인(孝友慈仁)하고 충전정직(忠齋正直)하여 음식은 몇 그릇에 지나지 않고 의복은 수놓은 비단을 입지 않았다 하였다.⁵⁴⁾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겸소함을 더욱 중시하여 백의는 서민복 뿐 아니라 청렴결백하고 학처럼 고고한 선비의 옷으로 애용되었다. 특히, 조선시대를 이끈 양반 사대부들은 백색의 세계를 선호하여 유색이라 하더라도 백색의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옥색, 회색 등과 같이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의 색을 많이 사용하였다.⁵⁵⁾ 당시 선비들의 도포, 두루마기, 창옷, 중치막 등 양반들의 복식은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색이 주를 이루었다.⁵⁶⁾

7. 서민복

백의는 서민 또는 평민의 복식이었다.

삼국유사에는 탈해(脫解)와 백의(白衣)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즉, 탈해가 동구(東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백의(白衣)에게 물을 떠오라 하였다. 백의가 물을 떠가지고 오다가 먼저 맛보고 드리려 하니 그 각배(角杯)가 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림 16〉 사인시음(士人詩吟)



〈그림 17〉 벼타작

탈해가 이것을 보고 꾸짖자 백의가 맹세하기를 「이 후에는 멀고 가까운 곳을 따질 것 없이 먼저 맛보지 않겠다」고 한 후 그제야 그릇이 떨어졌다. 이후 백의가 두려워하여 감히 속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전완길(1983)에 의하면, 이 이야기 중의 백의는 탈해가 부리는 사람이거나 평민을 가리킨다고 하였다.⁵⁷⁾

고대사회의 지배층은 자신들과 민중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색을 통제했다. 지배층은 흰색 이외의 다양한 색상을 택함으로써 민중들과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신라의 경우, 법흥왕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 의복이 달라야 한다는 이유로 사치(奢侈)를 금하여 관리의 직급별 복색(服色)을 규정(規定)하였으며, 이로 인해 평민들은 백의를 입을 수밖에 없었거나 아예 백의만 입는 편이 무난하였다.

고려시대에도 의복금제(衣服禁制)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고려 태조는 신라의 구제(舊制)를 그대로 쓰다가 광종에 이르러 백관의 사색(四色) 공복(公服)을 정하여 색채로 직품(職品)의 고하(高下)를 구별하였다. 그러므로 고려사회에서도 서민은 백의만을 착용할 수 있었거나 백의를 착용하는 편이 무난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삼도수군통제사였던 이순신이 원군의 모함으로 사형을 받게 되었다가 권율의 막하(幕下)로 백의종군(白衣從軍)하였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바인데 이순신의 백의종군은 무관(無冠)의 병사

를 의미하는 것이니 이 경우 역시 백의는 가장 낮은 신분 혹은 평민임을 가리킨다(그림 17)⁵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은 고대 부족 국가시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훈옷을 즐겨 착용하였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음양오행설의 부합 등을 이유로 수많은 백의금령이 내려졌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한국인에게 백의는 일반 백성의 복식이었으며, 양반들의 평거복, 종교적 의미가 담긴 성인복, 제례복, 상복으로 그 용도가 다양한 만큼 많은 사람이 널리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IV. 백의에 내재된 미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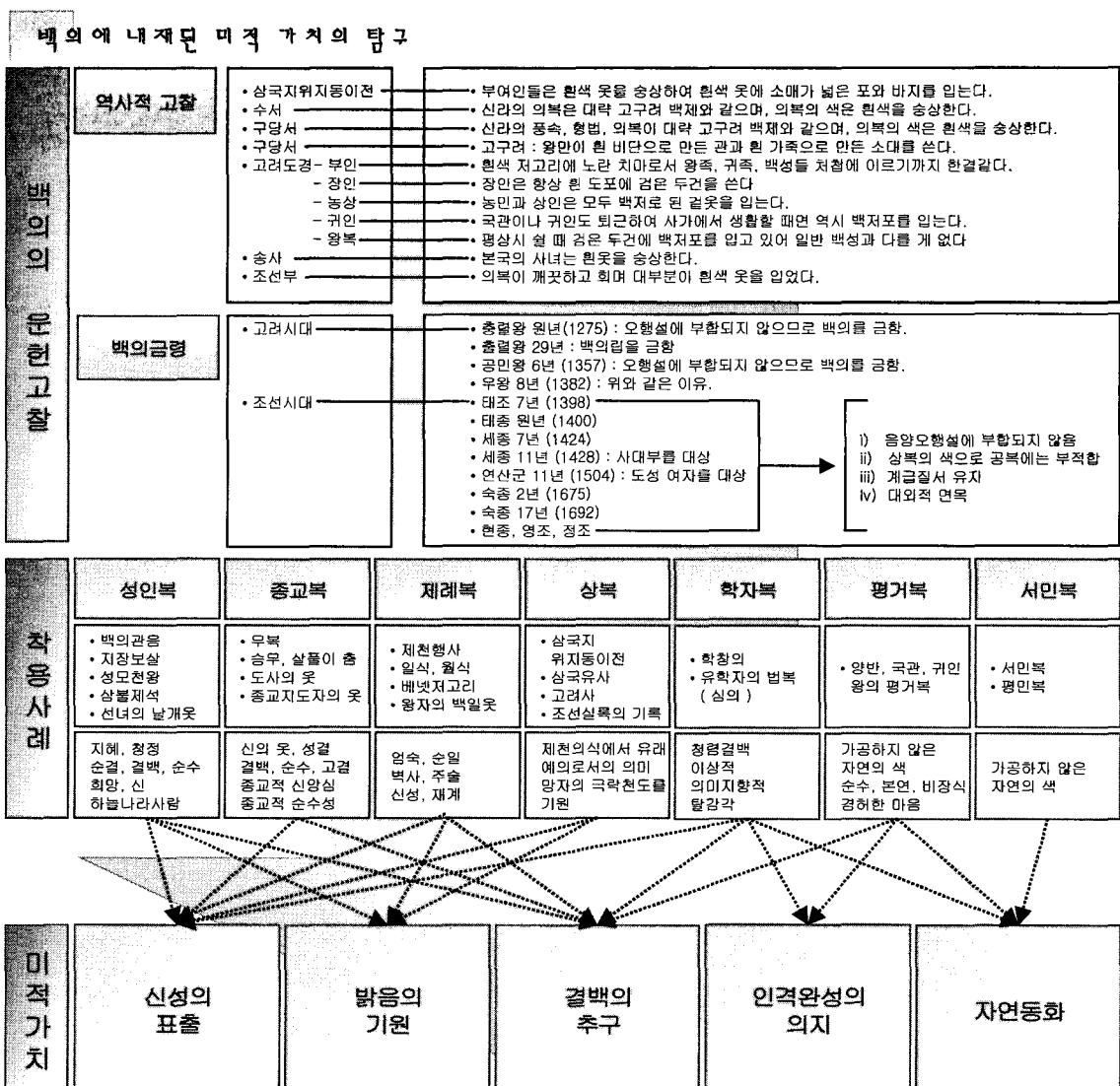
한국인의 백의풍속에 내재된 미의식은 사상적 배경에서 배태되어 나온 미적 태도이다. 미적 태도는 미적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설정하여 백의의 선호와 같이 구체적인 미적 특징을 창출하거나 향수 한다.

미적 가치는 민족의 성품과 이를 형성한 풍토적 여건, 사회, 정치, 경제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므로, 미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적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 또한 하나의 미적 특징에는 오직 하나의 미적 가치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하나의 미적 가치가 하나의 미적 특징만을 창출하지도 않으므로, 미적 가치는 복합적인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⁵⁹⁾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백의풍속에 내재된 미의식을 유추하기 위해 공식적인 기록인 역사적 고찰, 백의금령, 착용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백의 풍속에 잠재적인 동인이었던 미적 가치를 추출할 수 있었다. 미적 가치는 <그림 18>과 같이 신성의 표출, 밝음의 기원, 결백의 추구, 자연동화, 인격완성의 의지로 정리되었다. 각각의 미적 가치는 <그림 18>에서와 같이 서로 연관되어 상호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신성의 표출

한국인은 부족국가시대로부터 백의를 숭상해왔다. 고구려시대에는 왕의 관과 대를 백색으로 할 만큼 백색이 최고 계급의 색을 의미한 시대도 있었다. 한국의 성인복(聖人服), 종교복, 제례복, 상복, 학자복, 평거복, 서민복에 이르기까지 백색을 애용해 온



<그림 18> 한국인의 백의에 내재된 미적 가치

것은 고대 사회의 종교적 권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⁶⁰⁾

한국의 흰색은 ‘희다’ 즉, 중세표기로 ‘하다(白)’에서 유래하며, 태양과 난을 의미하는 ‘희’를 어근으로 한다. 한자를 살펴보아도 ‘백(白)’자는 해를 의미하는 ‘日’자 위에 빛을 가리키는 한 획을 그어 이루어져 있다.⁶¹⁾ 이는 고대 사회에서 해 또는 햇빛을 흰색으로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 고대 사회에서 태양은 곧 신, 하늘, 천국을 의미했으며, 이를 상징하는 흰색은 매우 신성한 의미를 지닌 색이었다.⁶²⁾

한국인의 백의 선호를 태양숭배사상, 제천의식, 경천사상 등과 관련지어온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대개 조선민족은 옛날에 태양을 하느님으로 알고 자기네들은 이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믿었는데 태양의 광명을 표시하는 의미로 흰빛을 신성하게 알아서 흰옷을 자랑삼아 입다가 나중에는 온 민족의 풍속을 이루고 만 것입니다.』 그는 덧붙여서, 조선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고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은 모두 흰빛을 신성하게 알고 또 흰옷 입기를 좋아하니 이를테면 이집트와 바빌론의 풍속이 그것이라고 하였다.⁶³⁾ 이와 같이 한국의 흰색은 고대사회로부터 종교적 가치를 지닌 신성한 색으로 승상되어 왔으며, 다양한 길조(吉兆)의 의미와 상서로운 의미가 부여되어왔다.

복식이외에도 흰색은 사물을 통하여 길조로 표상된 경우가 많다. ‘흰 사슴이 나타나면 상서로운 일이 생긴다. 흰 곰이 나타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흰 죽지갈매기를 보면 좋다. 흰 뱀이 나타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흰밥을 즐기면 오래 산다. 흰옷을 입으면 남의 초대를 받는다. 아침에 흰 말을 보면 그 날 돈이 생기거나 재수가 좋다. 손톱에 흰 점이 생기면 재수가 좋다. 꿈에 흰 원숭이를 보면 관록이 있다. 꿈에 백발이 되면 그 해에 근심 없이 생활한다. 꿈에 흰옷을 입으면 사람에게 공경을 받는다’와 같이, 흰색을 승상해 온 한민족이어서 흰색에 대한 길조어(吉兆語)는 매우 많이 있다.⁶⁴⁾

흰 동물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숭배해온 민족정서는 백마, 백록, 백호 등에서도 두드러진다. 백마는 늘 행운의 상징이었고, 한라산 꼭대기가 백록담이

된 것도 길조와 관련된다. 좌청룡 우백호에서 백호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도 또한 흰색에 대한 민족정서를 잘 대변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백마숭배는 동북아시아 유목민족문화의 보편적인 풍습이었다. 전통적으로 시베리아, 몽골, 만주, 한국 같은 몽골리안 계통에서는 백마를 숭상해왔다. 천신에게 백마를 제물로 드리는 풍습은 매우 오랜 전통을 지닌다.⁶⁵⁾ 한국사를 살펴보면,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의 문무왕과 웅진성에서 회맹할 때에 백마를 잡아놓고 토지와 천곡의 신께 제사를 지낸 뒤에 백마의 피를 나누어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한국의 신화 속에서도 신성한 의미를 지닌 흰색 동물을 발견할 수 있다. 박혁거세의 자란(紫卵)은 이기(異氣)가 전광처럼 땅에 드리우고 백마가 궤배(跪拜)하는 가운데 천강(天降)하였고, 김알지의 황금궤는 자운(紫雲)이 천(天)으로서 드리우고 백계(白鶲)가 장명(長鳴)하는 속에 출현하였다는 것처럼 부서(符瑞)의 물은 대개 백색으로 표현하고 있다.⁶⁶⁾

음식풍속에서도 흰색에 담긴 신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민족정서가 잘 드러나는 민속신앙의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제물을 올리는 것이었다. 제례음식에서 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례에 쓰는 떡은 떡 문화의 다양성만큼이나 복잡하나, 가장 신성한 제사를 올릴 때에는 순수한 하얀색의 백설기를 올렸다. 백설기는 쌀가루를 그대로 찧어낸 ‘원초적인 떡’이다. 칠석날 소찬으로 깨끗한 제를 올릴 때, 산에 가서 산신에게 간소하면서도 엄정한 제를 올릴 때, 백설기는 필수품이었다. 돌떡으로 백설기를 쓰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농경 정착이 이루어진 아래로 쌀은 그 자체가 신성함의 상징이었다. 흰쌀의 순수한 결정으로 빚은 백설기는 그래서 농경민족의 상징적인 제물이 되었다.⁶⁷⁾ 또한, 새해가 되면 흰 떡국을 만들어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새해를 축하해온 관습이나, 흰밥으로 공양과 길사를 경축하는 풍습도 서색으로 사용된 흰색의 예이다.⁶⁸⁾

이와 같이 한국의 흰색은 고대 사회로부터 신성한 의미를 지닌 색으로 승상되어왔으며 다양한 길서색(吉瑞色)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되어왔다. 세계 공통적으로 제례복이나 성직자의 옷은 대개 흰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조상 숭배가 뿐 리 깊은 곳에서는 태양의 광명 표상인 흰색이 하늘의 자손(天孫)을 상징하는 색으로 종교적 가치를 지닌 색이었다. 예복과 특히 제복으로 경건함을 표시해온 흰옷은 점차 서민의 일상복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이러한 종교적 가치에 근원을 두고 오랜 시기에 걸쳐 관습적으로 착용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2. 밝음의 기원

한국인의 백의에는 부정(不淨)한 것을 멀리하고 액으로부터 보호하여 태양 빛처럼 막힘이 없는 밝은 앞날을 기원하는 희망의 염원이 담겨있다.

한국인은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흰옷을 입히고 장수를 기원하는 실대를 달아주었으며, 궁중에서도 백일된 왕자 아기에게는 흰 바지를 입혀 액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주술적 의지를 표현하였다. 음식 풍속으로도 전해지는 백일 날에 하얀 백설기를 돌리는 관습이나, 생일날에 흰쌀밥, 혼인날의 흰 국수를 나눠 먹는 관습 등도 가장 경사스러운 날에 햇빛과 같이 밝은 앞날을 기원해온 풍속이다.

또한 상복을 흰색으로 하는 한국의 오랜 관습에서도 밝은 색(明色)인 흰색으로 사자(死者)의 저승 길을 밝히고, 상주가 흰색의 상복을 입음으로써 사자의 영혼이 좋은 세계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믿음이 담겨져 있다.⁶⁹⁾

한국인은 태양을 신으로 하는 제천의식(祭天儀式)과 경천사상(敬天思想)과 같은 종교적 가치를 지닌 흰색을 선호하여 어두운 것과 음흉한 것을 피하고 밝은 것을 지향하는 고유의 '밝'문화를 형성하였다. '밝'이란 백(白)을 의미하며, '광명(光明)' 즉, '밝음'을 뜻한다. 고의(古義)에는 신(神) · 천(天) 등이 있고, 신이나 천은 그대로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다.⁷⁰⁾ 한국의 '밝' 사상은 고대 사회의 나라 이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환웅이 '신시(神市)'를 베풀고, 단군이 개국하여 국호를 '조선(朝鮮)'이라고 한 것은 희고 깨끗하며 밝다는 태양숭배사상, 즉 '밝'사상에 연원이 있다.⁷¹⁾ 고대 부족국가인 부여, 예맥 등도 자신들의 부족이 밝족 또는 스족이라 자처하였다. '부여(扶餘)'라는 말은 밝음을 뜻하며, 예맥족

(濶貊族)은 본래부터 동쪽과 밝음의 부족을 뜻한다. 이는 하늘의 태양으로 인하여 밝음과 광명이 생겨나며, 그 태양은 우리나라에 위치한 동쪽에서 떠오르므로 '동(東)-명(明)', 즉 동방의 밝은 곳이라 한 것이다.⁷²⁾

한국의 산 이름을 살펴보아도 백두산(白頭山)을 비롯하여 소백산(小白山), 백운산(白雲山), 백마산(白馬山) 등과 같이 백(白)자가 들어가는 산 이름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백(白)자가 태양을 신으로 하는 일종의 제천의식에서 유래하며 광명국토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밝은 색을 의미하는 흰색의 사용은 조선시대의 문학작품인 시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조년의 시조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에서 흰색은 배꽃에 달빛이 환하게 비친 모습을 표현하여 '밝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⁷³⁾

한국인의 극락관념을 살펴보아도 '밝음'을 지향해온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은 극락세계를 빛의 세계, 즉 광명의 세계로 묘사하여 백색으로 표현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녀의 하얀색 날개옷은 하늘나라 사람을 의미하며, 백마와 백계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겼다. 반면, 저승은 음부, 명부, 유천과 같이 어둠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므로 어둠을 물리치는 밝은 빛 즉, 흰색은 신비한 권능을 발휘한다고 여겨 부정을 없애주는 불정(祓淨)의 의미와 나쁜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백의풍속은 고대사회의 종교적 가치로부터 기원하여 '밝음'을 지향해온 '밝'사상의 시각적 표현이며 불정의 의미와 벽사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백(潔白)의 추구

한국인의 백의에서 보이는 백색의 청결함은 화사한 아름다움과 아무것도 탐하지 않는 순진무구한 심상을 표출한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청렴결백한 선비상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겨왔으며, 마음가짐이나 생활에 있어서 불결하고 사악한 것을 절대 배격하고 결백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왔다.

결백은 혼탁불순(混濁不純)하거나 더럽지 않고 진실무잡(眞實無雜)하여 깨끗한 것,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깨끗하여 허물과 흠이 없는 것을 말한다. 한국인은 허물과 흠이 없는 것을 「흰」빛으로 나타내는 것을 좋아했다. 물계(物界)와 속탐(俗貪)이 없는 것을 청백(淸白)이라 하였으며, 소범(所犯) 없음을 자랑함에 백백무죄(百百無罪), 청천백일(青天白日), 기원내백(其冤乃白)이라 하였다. 희면 그만큼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공명정대(公明正大)한 군자(君子)의 심사(心事), 성자(聖者)의 용(容), 충효열자(忠孝烈者)의 심(心) 등을 백색에 비유하여 의기(義氣)를 표현해왔다.⁷⁴⁾

청구영언(青丘永言)에 실린 옛 시(詩)들을 살펴 보면 백색이 붙는 날말로 흰달, 흰눈, 흰꽃, 흰옷, 백일, 백발, 백지 등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충절(忠節)을 표현하며 아무런 사심이 없는 선비의 깨끗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⁷⁵⁾ 중국의 옛 문헌에도 노자(老子)의 결백을 찬미한 백화(白華)란 책이 있으며, 〈춘추(春秋)〉에는 충성(誠忠無二心)을 맹세(誓白) 할 때 백수(白水)란 말을 썼다.

문학작품에서도 결백을 의미하는 백색을 발견할 수 있다. 정몽주의 어머니 작품으로 전해지는 시조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白鶲)야 가지 마라...'에서는 백로를 통해 '순결'과 '결백함'을 상징하고 있다. 시조에서 백색은 까마귀의 흑색과 대조적으로 사용되어 밝고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 결백하고 사용에 물들지 않은 강직함을 표현한다.⁷⁶⁾

이와 같이 한국의 백색은 몸과 마음이 깨끗한 결백을 의미했다. 결백은 한국인에게 있어 중요한 사상의 한 부분이었다. 이는 오랜 시기에 걸친 백의의 선호로 표현되어왔다.

4. 자연동화

한국인에게 흰색은 염색을 하지 않은 색으로 있는 그대로의 원색 곧 자연(自然) 그 자체를 의미했다.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직물을 '그저 있는 그대로' 작용하는 것을 좋아해 온 한국인은 그만큼 자연 친화력이 강했고, 자연스러움을 높이 평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스러움이 유발하는 미적 표현은 있는 그대로의 인위적인 가공이나 의도적인 미적 의지까지도 제외된 백의에서 현저하게 부각되었고, 이는 소박하며 겸손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특징으로 표현되었다.⁷⁷⁾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편안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살아 온 한국인의 성향은 자연이라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귀의하려는 자연과의 동화로 승화되었다.

한국인은 태양을 신으로 하는 제천의식과 경천사상으로부터 백색에 대한 표상적 개념을 형성하였고, 신으로서의 신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자연으로서의 신에 귀일하고 더 나아가 천인합일(天人合一)하는 신화체계를 형성하였다.

고대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를 살펴보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단군은 천(天)과 인(人)의 이원적 관계를 소멸하고 인간화된 천신(天神) 또는 천신화 된 인간으로 이른바 '신인(神人)'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는 한국인의 천(天)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인은 인간이 자연에 동화하여 조화와 질서 속에서 밝고 아름다운 찬란한 햇빛으로 개벽되는 현세관을 구가해온 것을 알 수 있다.⁷⁸⁾

이와 같이 한국인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에 동화하며 순리대로 사는 것을 올바른 삶이라 믿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의 색에 굳이 염색을 하거나 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의복은 물론이고 집안의 기둥과 벽, 마루, 방안의 가구에 이르기 까지 자연 그대로의 색이라는 데에 예외가 없다. 국기를 보아도 그렇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 중 흰 바탕의 여백을 남기고 있는 국기로는 태극기와 일본국기 등 몇 나라에 불과하다. 이규태는 태극기가 백지를 본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색채감각의 표현으로, 색에 물들지 않은 태초의 천진(天真) 그대로를 송상하는 정서의 표현이라 보았다.⁷⁹⁾

이와 같이 한국의 백의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색으로 비장식적인 것, 본연의 것, 즉 자연에 귀의하고 동화하려는 겸허한 마음이 함축되어있다. 이는

자연과 융합하고자 하는 한민족의 소박함이 담긴 미의식이라 할 수 있다.

5. 인격완성의 의지

한국의 백색은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색으로 있는 것을 펼쳐내고 드러내지 않는 색이다. 이는 무소유함, 청빈, 욕망을 절제한 금욕적 성향을 상징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고 높은 정신 세계를 추구해온 선비들은 백의를 선호했다.

본능의 억제를 겸양지덕(謙讓之德) 또는 극기복례(克己復禮)로 여긴 금욕적 성향은 특히 조선시대의 정신세계와 생활양식을 지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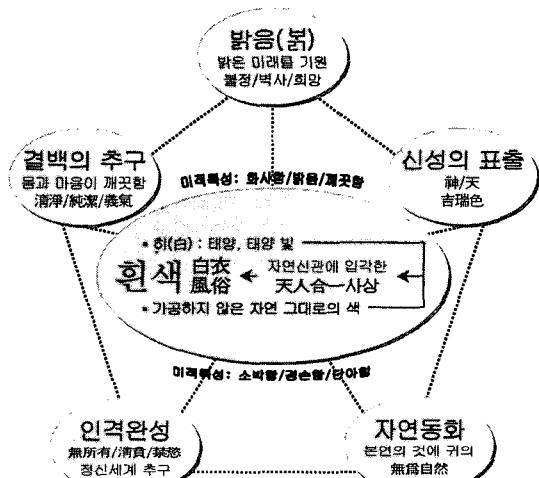
조선시대를 이끈 양반 사대부들은 유교의 성리학을 추구하였다. 성리학은 세계와 우주가 일원적인 통합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의 삼관만상이 하나의 궁극적인 체계아래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심성의 수양, 존심 양성, 궁리(窮理)를 중요시하며, 인간본성에 대해 탐구하고 도덕적 규범을 수양해 나가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실천적 생활의 도로써 인의예지(仁義禮智)의 규범과 금욕적 윤리관을 요구하였으며, 겸소하고 질박한 것을 생활의 가르침으로 추구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과 개성의 자유는 반드시 천리(天理) 또는 예(禮)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생활 양식과 예술작품에서도 리(理)로써 정(精)을 절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사람의 욕심을 제거하고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려는 성향으로 이러한 것의 판단 기준은 바로 예(禮)가 된다.

따라서 의복, 회화, 건축, 공예 등 모든 생활양식과 미학적인 면에서 예(禮)를 기준으로 하여 외면적인 장식을 부정하고 내면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간소함으로 표현하였다. 당시의 문인화, 백자, 백의의 간소함은 이러한 사고체계에서 나온 것으로 극히 단순한 형체와 색채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극도로 절제하면서 고도의 정신적인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위성과 화려함, 장식적 미감이 배제된 백의의 선호는 절제와 금욕적인 생활을 중요시하고 학문과 도덕을 근간으로 고도의 품격과 인격

완성을 추구해온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반영한다.

이상에서 한국인의 백의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적 가치를 멋있게 표현하려 한 미적 태도는 한국인이 백의를 통해 추구한 미의식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한국인의 백의풍속에 내재된 미의식

V. 결론

한국인의 백의풍속에 내재된 미의식을 규명하기 위해 백의에 대한 문헌 및 착용사례를 고찰하고 미적 가치를 추출해보았다.

미적 가치는 신성의 표출, 밝음의 기원, 결백의 추구, 자연동화, 인격완성의 의지 등으로 정리되었다. 이 미적 가치들은 한국인이 백의를 제작하고 착용하고 감상할 때 활용했던 판단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 미적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한국인은 백색 복식이 아름답다거나 멋이 있다는 평가를 했으며, 이러한 미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식으로 백의를 선호했던 것이다. 이러한 미적 가치를 멋있게 표현하려 한 의식 내지 의식은 한국인이 백의를 통해 추구한 미의식이 된다.

신성, 밝음, 결백, 자연동화, 인격완성의 의지 등은 원시신앙에서 유래하는 경천사상과 이후의 불교, 도교, 유교 등과 같은 한국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종교들과 상호 관련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며 형성되어왔다. 이러한 미적 가치들은 상호 연결되고 중복되기도 한다. 이 미적 가치들은 <그림 19>에서와 같이 종교적 가치에 근원을 둔 신앙적 성격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 성격은 신성함, 밝음, 결백, 자연동화, 인격완성의 의지에 분산되어 내재되어 있는 공통분모라 하겠으며, 백의에 내재된 미의식의 주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백색의 승무복, 학자들의 심의와 학창의, 양반들의 도포와 중치막 등에서와 같이 정제된 복식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태도가 결합된 미의식은 화사함, 밝음, 깨끗함, 단아함, 소박함 등의 백의의 객관적인 미적 특징을 구현시키며 아름다움, 고운, 멋, 맵시, 태 등의 미적 범주를 창출해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에게 백색은 태양을 신으로 하는 제천의식 경천사상과 같은 원시신앙으로부터 유래하는 색채의식의 원류이며, 한국인의 백의풍속은 이와 같은 자연신관에 입각한 천인합일사상에서부터 비롯되어 이후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영향과 함께 융합되고 지속되어 온 한민족의 정신이자 상징이며 멋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이 오랜 시기에 걸쳐 백의를 착용해온 특이한 풍속에 대해서는 많은 외국인들도 주목해왔으나, 현재 남아있는 문헌들은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왜곡된 시각에서 저술한 비평적인 저서들이 대부분이다. 서양에서는 가장 완벽한 신의 색으로,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깨끗하고 순수한 색으로 평가되고 있는 백색의 일반적인 색채 이미지와 함께 한국인의 백의 선호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崔南善 (1948). 朝鮮常識.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全集編纂委員會 編 (1973). 六堂崔南善全集 3. 현암사, p. 216.
- 2) 河龍得 (2001). 韓國의 傳統色과 色彩心理. 명지출판사, pp. 18-22.
- 3) 三國志 魏書, 東夷傳 夫餘條. 자료검색일 2005, 8, 17.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74020>
- 4) 隋書 八十一 新羅傳. 자료검색일 2005, 8, 29.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burigb/100010462100>
- 5) 舊唐書 卷百九十九 新羅傳. 李明姬 (1974). 韓國白衣考.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재인용.
- 6) 주강현 (2004).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신문사, p. 98.
- 7) 李順媛, 白英子 (1990). 韓國服飾. 韓國放送通信大學, p. 34.
- 8) 徐兢, 조동원 등 역 (2005). 宣和奉使 高麗圖經. 서울: 황소자리, pp. 256-257.
- 9) 徐兢, 조동원 등 역 (2005). 위의 책, pp. 252-253.
- 10) 徐兢, 조동원 등 역 (2005). 위의 책, p. 252.
- 11) 徐兢, 조동원 등 역 (2005). 위의 책, pp. 122-123.
- 12) 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1992). 한국 문화 상징 사전. 서울 : 동아출판사, p. 323.
- 13) 河龍得 (2001). 앞의 책, p. 27.
- 14) 주강현 (2004). 앞의 책, p. 96.
- 15) 董越, 윤호진 역 (1994). 朝鮮賦. 서울: 도서출판 까치, p. 82.
- 16) 金元龍 외 (1995). 인물화. 중앙일보사, p. 54.
- 17) 高麗史 卷八十五 刑法 禁令. 河龍得 (2001). 앞의 책, p. 27 재인용.
- 18) 河龍得 (2001). 앞의 책, p. 28.
- 19) 李明姬 (1974). 앞의 책, p. 9.
- 20) 백의관음(白衣觀音). 자료검색일 2005, 9, 5. 자료출처 <http://100.naver.com/100.php?id=748375>
- 21) 崔南善 (1925). 백색.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全集編纂委員會 編 (1973). 六堂崔南善全集 2. 현암사, p. 451.
- 22) 백의 수월관음도. 고려 1310년, 419.5cm×254.2cm. 일본 경신사 소장. <http://cafe.daum.net/amitaworld>
- 23) 崔南善 (1948). 앞의 책, p. 451.
- 24) 주강현 (2004). 앞의 책, p. 141.
- 25) 韓國文化象徵辭典 (1992). 앞의 책, p. 325.
- 26) 주강현 (2004). 위의 책, p. 141.
- 27) 琴基淑 (1994). 朝鮮服飾美術. 悅話堂, p. 62.
- 28) 韓國文化象徵辭典 (1992). 앞의 책, p. 325.
- 29) 그림출처: 국립국악원 KBS (2003). 한국음악선집 제 28집 한국의 뜻 NO.7 진도씻김굿, 음반사진.
- 30) 琴基淑 (1994). 朝鮮服飾美術. 悅話堂, p. 62.
- 31) 권오창 (1998).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현암사, p. 156.
- 32) 권오창 (1998). 위의 책, p. 152.
- 33) 승무. 자료검색일 2005, 10, 20. 자료출처 <http://100.naver.com/100.php?id=100023>
- 34) 徐兢, 조동원 등 역 (2005). 위의 책, p. 239.
- 35) 권오창 (1998). 앞의 책, pp. 94-96.
- 36) 韓國文化象徵辭典 (1992). 앞의 책, p. 323.
- 37) 권영필외 (1994). 韓國美學試論.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p. 58.
- 38) 全完吉 (1983). 韓民族의白衣好尚由來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9.
- 39) 崔南善 (1925). 앞의 책, p. 448.
- 40) 琴基淑 (1994). 앞의 책, p. 62.
- 41) 全完吉 (1983). 앞의 책, p. 33.
- 42) 李明姬 (1974). 앞의 책, pp. 68-76.

- 43) 全完吉 (1983). 앞의 책, pp. 33-38.
- 44) 李明姬 (1989). 韓民族의 白衣風俗에 영향을 준 動因
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0-34.
- 45) 상여. 자료검색일 2005. 10. 20.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leepansoo//100012902126>
- 46) 韓國文化象徵辭典 (1992). 앞의 책, p. 323.
- 47) 구미래 (1992). 한국인의 상징세계. 주식회사 교보문
고, pp. 45-46.
- 48) 권오창 (1998). 앞의 책, pp. 74-75.
- 49) 권오창 (1998). 위의 책, pp. 74-76.
- 50) 徐競, 조동원 등 역 (2005). 앞의 책, p. 252.
- 51) 徐競, 조동원 등 역 (2005). 위의 책, pp. 122-123.
- 52) 문화관광부·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2004).
우리 옷 이천 년. 미술문화, pp. 56-61.
- 53) 李明姬 (1989). 앞의 책, pp. 36.
- 54) 全完吉 (1983). 앞의 책, p. 45.
- 55) 琴基淑 (1994). 앞의 책, p. 57.
- 56) 金元龍 외(1995). 앞의 책, p. 57.
- 57) 全完吉 (1983). 앞의 책, p. 41.
- 58) 金元龍 외 (1994). 풍속화. 중앙일보사, p. 97.
- 59) 琴基淑 (1994). 앞의 책, pp. 155-156.
- 60) 崔南善 (1948). 앞의 책, p. 216
- 61) 韓國文化象徵辭典 (1992). 앞의 책, p. 647.
- 62) 崔南善 (1925). 앞의 책, p. 456.
- 63) 주강현 (2004). 앞의 책, p. 100.
- 64) 韓國文化象徵辭典 (1992). 앞의 책, p. 648.
- 65) 주강현 (2004). 앞의 책, pp. 101-102.
- 66) 崔南善 (1925). 앞의 책, pp. 447-448.
- 67) 주강현 (2004). 앞의 책, p. 102.
- 68) 崔南善 (1925). 앞의 책, pp. 449-462.
- 69) 구미래 (1992). 앞의 책, p. 45.
- 70) 崔南善 (1948). 앞의 책, pp. 44-45.
- 71) 韓國文化象徵辭典 (1992). 앞의 책, p. 648.
- 72) 구미래 (1992). 앞의 책, p. 41.
- 73) 琴基淑 (1994). 앞의 책, p. 58.
- 74) 崔南善 (1925). 앞의 책, p. 445.
- 75) 河龍得 (2001). 앞의 책, p. 24.
- 76) 琴基淑 (1994). 앞의 책, pp. 58-59.
- 77) 琴基淑 (1994). 위의 책, pp. 59-60.
- 78) 한국미술의자생성간행위원회 (2004). 한국미술의 자생
성. 한길아트, p. 569.
- 79) 구미래 (1992). 앞의 책, p. 44.